

公州鳳安出土銅劍·銅戈

安承周

I、

公州 鳳安地域에서 圓錐形 台足이 달린 百濟土器를 發見한 후 그 地域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鳳安里 安基마을 뒷 山에서 民墓를 築造하다 銅劍·銅戈가 出土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遺物을 찾아 收拾하기에 이르렀다. 鳳安里는 長岐面 大橋川이 흐르는 川邊 큰 들판 뒷 마을로, 그 大橋川을 따라 약 3 km 정도 내려가면 錦江에 다다른다.

遺蹟은 이미 파괴되었으나 이곳에서 出土된 遺物은 扶餘邑을 비롯한 草村、窺岩、良化、南面과 論山、恩津、大田市の 炭坊、文化、槐亭洞、燕岐 鳳岩里等地的 靑銅器 遺物과 함께 錦江流域의 靑銅器 文化를 理解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資料가 될 것으로 믿는다.

II、

파괴된 遺蹟址는 鳳安里 安基마을 뒷산 海拔 약 30 m 정도의 山頂上 가까이 南向에 位置되어 있다. 民墓 築造당시 雜役人夫였던 高昇馥氏의 말에 의하면 地下 약 1 m 지점에서 腐土가 나오는 線을 따라 山頂上 쪽으로 1·5尺 정도 같은 레벨로 흙을 팠을 때 팽이에 銅劍이 걸려 그것을 파내고, 이어서 銅戈도 파냈으며, 銅劍이 부러진 것도 그때의 注意로 기억하고 있었다. 새로 埋葬할 民墓의 壙은 다시 아래로 3尺 정도 내려서 파고 墓를 築造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土壙墓에서 遺物이 出土했다고 믿어진다.

III、

土壙墓에서 出土된 銅劍·銅戈중 銅劍은(圖 I 右、圖 II 左) 劍身 全面에 많은 損傷을 입고 있으며 특히 區分의 磨滅이 더욱 심하고, 節帶 部分에서 絶斷된 것은 前述한 바와같이 發見者의 不注意로 생각된다. 劍의 등대에 세운 銳利한 稜角은 挾入部 以下 基部까지 達하고 있으며 劍의 날도 劍身 全體에 세워졌고 劍身의 幅은 挾入部 밑에서 약간 넓어졌으나 극히 形式的이다. 鋒部는 斷面이 扁菱形이고 細長되어 매우 銳利한 느낌을 주고 있다. 劍의 크기는 全長이 33·1 cm、劍身의 幅은 節帶 윗쪽에서 3·2 cm、節帶 아랫쪽에서 3·3 cm이다. 莖部는 斷面이 橢圓形이고 두께는 最大 1·4 cm 幅은 1·9 cm、길이 2·8 cm이다. 黑綠色을 띤 銅戈는(圖 I 左、圖 II 右) 背面兩側に 平行으로 길은 홈이 나 있고 그 홈은 鋒部에서 刀稜과 습치며 이 刀稜은 鋒部에만 있고 등대에는 세우지 않아서 등대의 斷面은 圓形이다. 關部 가까이 兩側 홈에는 자루를 붙여 매기 위한 두개의 구멍을 크게 뚫어 놓았다. 莖部는 梯形이며, 鋒部는 그 斷面이 菱形이고, 刃部는 銳利한 날이 大部分脱落되었는데 그 흔적으로 보아 出土된 후에 입은 損傷인 듯하다. 크기는 戈의 全長이 26·2 cm、關部の 幅 8·5 cm、鋒部の 길이 5·8 cm、莖의 길이 3·6 cm、莖의 幅 3·8 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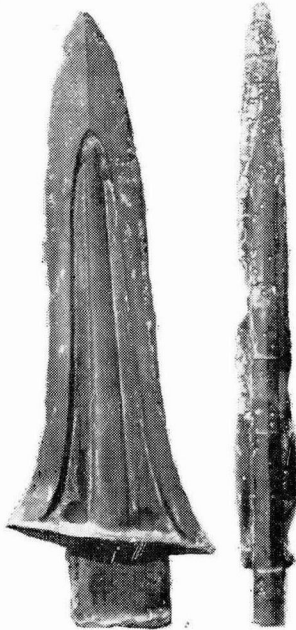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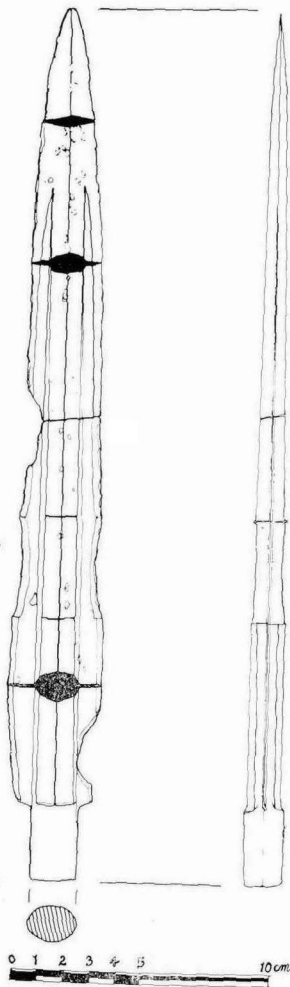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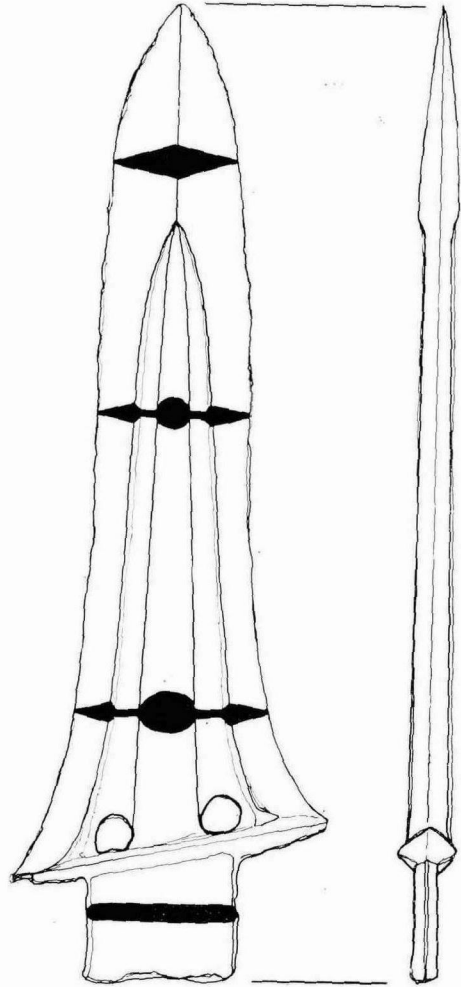


圖 I 左 銅戈 右 銅劍



圖Ⅱ 左 銅劍



右 銅戈

IV,

錦江流域에서出土된 靑銅器 遺物의 年代는 가장 古式인 扶餘草村面松菊里 瑟琴形銅劍①을 비롯해서 後期의 形式으로 인정되고 있는 燕岐 鳳岩 出土 銅劍·銅戈도② 發見된바 있어, 錦江流域의 靑銅器文化는 初期 靑銅器時代부터 後期에 이르기까지 錦江의 天惠의 條件을 이용하여 農耕生活를 營爲하면서 보다 큰 部族聯盟體를 形成發展시켰을 것이다. 요즘 이곳에서 出土된 銅劍은 形式上 가장 後期에 사용되었던 것으로③ 믿어지며 이 靑銅器 形式을 製作한 사람들이 錦江邊의 여러 지역에서 靑銅器文化를 初期 鐵器時代로 넘겨주는 役割을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이들이 百濟 以前 部族聯盟時代 支配層의 構成員이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이 옳다면 이곳 鳳安里 一圓에서 發見되고 있는 百濟 古式의 土器製作人들도 그곳 靑銅 器人들의 文化를 傳承시켜 내려온 後繼者들이라고 볼 수 있다.

〔註〕

① 金永培, 安承周 「扶餘 松菊里 蓮寧式銅劍出土 石棺墓」 百濟文化 7·8合輯(1975, 12) P.77, 29.

② 國立博物館 「靑銅遺物圖錄」 圖版 17, 圖面 11

③ 尹武炳 「韓國 靑銅短劍의 型式分類」 震檀學報 29, 30合併號(1966, 12) P.239, 246.

(公州師範大學 附屬博物館長)